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8)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8 2)96사단 주둔지 (23)절물오름
휴양림 조성 절물오름 日 갱도로 상처

입력 : 2007. 12.27. 00:00:00



▲절물오름에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 입구가 알파벳 와이자(Y)형으로 돼 있다.

오름 사면서 갱도 7곳 새로 찾아내

약수터 물 명도암까지 끌어다 사용

절물자연휴양림으로 잘 알려진 절물오름도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의 전쟁기지로 요새화됐다. 당시 제주섬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절물오름 곳곳에 갱도진지를 구축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일본군들은 갱도 구축 뿐만 아니라 절물오름의 약수터 물까지도 식수로 이용하기도 한다. 명도암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마을에 주둔했던 일본군 96사단 293연대본부 병력이 왕대나무로 수도관을 만들어 절물오름의 물을 끌어다 썼다. 오름 곳곳이 일본군 전쟁야욕이 빚어낸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절물오름(봉개동 산78-1번지 일대)은 작은절물(표고 657m)과 큰절물(표고 696.9m)로 나뉜다. 오름 전체는 활엽수 등으로 울창한 자연림을 이루고 있다.



▲절물오름 약수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들이 이 물을 끌어다 썼다.

탐사팀은 작은절물에서 4곳, 큰절물에서 3곳 등 모두 7곳의 갯도 및 입구가 함몰된 갯도를 찾아냈다. 절물오름에서 일본군 갯도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가운데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갯도는 2곳으로 모두 큰절물에 위치하고 있다. 길이가 50여m 정도의 갯도는 출입구가 3곳이다. 한쪽 출·입구는 알파벳 와이(Y)자 형태인데다 경사져 있다. 또 다른 출·입구도 진입통로가 경사진 형태로 만들어졌다. 내부공간에는 밑둥만 남은 갯목이 박혀 있다.

이 갯도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갯도 안쪽 깊숙한 곳에는 박쥐 20~30여 마리가 천장에 달라붙어 랜턴 불빛에도 꿈쩍을 않는다. 탐사팀이 차츰 진입하자 부라부라 '쉬익쉬익' 파열음을 내며 날아오른다.

탐사팀은 인근에서 또 하나의 갯도를 찾아냈다. 이 갯도는 30m 정도의 길이로 한쪽 입구는 막혀있다. 내부 또한 송이층이 무너지면서 상당부분 원형을 잃은 상태다. 조심스레 기어서 진입하자 천장이 무너지면서 내부가 넓어지고 높아진 부분이 나타난다. 갯도는 이 지점부터 막혀 있다.



▲갱도 내부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왼쪽)과 갱도내부 천정에 무리지어 달라붙어 있는 박쥐떼.

죽은절물의 갱도는 입구가 대부분 함몰된 상태다. 하지만 입구 쪽에 쌓인 토사층을 볼 때 상당한 정도의 갱도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갱도 앞쪽은 수림이 우거진 넓은 개활지다. 개활지 끝자락에는 '복곽진지'였던 견월악이 솟아있다. 견월악에서도 많은 갱도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 일대가 중요한 전략거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절물오름의 갱도는 60여년전 제주읍 동부지역에 주둔했던 일본군과 관련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곳은 일본군 96사단 293연대본부 및 병력이 주둔했던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마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절물오름은 또한 복곽진지였던 견월악을 비롯 주변 오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런 연유에서 명도암 마을에 연대본부 및 병력이 주둔하고, 절물오름은 전투지휘소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갱도진지 등 군사시설을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문필 탐사위원도 "절물오름의 입지와 갱도 등을 볼 때 명도암 마을 일대에 연대본부가 주둔했다면 절물오름은 전투지휘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0여년전 이땅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남긴 군사시설과 역사적 성격규명 등을 위해 제주도 전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학술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 /

시민공원휴양림내 日 군사시설 조사 시급

일본군이 60여 년 전 태평양전쟁 시기에 구축한 갱도 등 군사시설이 자리한 오름은 오늘날 시민공원이나 휴양림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전망이 트이고 경관이 좋은 곳

에 일본군들이 갯도를 구축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해안가나 도심과 가까운 경우는 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시 사라봉과 별도봉, 민오름, 광이오름, 절물오름, 서귀포시 군산 등이 꼽힌다.

이들 오름은 사방이 탁 트여 조망이 좋을 뿐 아니라 접근성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들 오름에 산재한 일본군 관련 군사시설들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자체가 아픈 역사현장이자 훌륭한 산교육의 장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오름 일대의 역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술규명 및 정비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안내판을 정비해서 이러한 아픈 역사적 사실들을 수록함으로써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